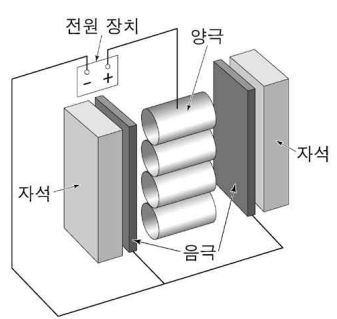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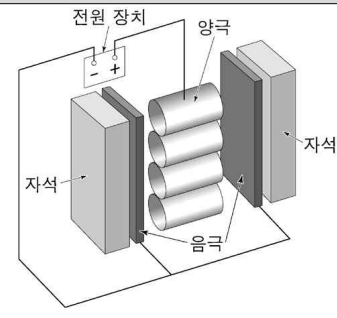


* 학습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 단순 오타를 제외하고,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음영 표시를 했습니다. 음영 표시만 확인하셔도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For 2024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독서편 정오표 (본교재)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권 50페이지 8번 문장 해설 첫 번째 화살표 (3쇄부터 반영)	내일부터는 이렇게 ~ 맛만 보도록 합시다.	뒤에서는 이렇게 '표지' 없이 제시되는 재진술도 다뤄 볼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맛만 보도록 합시다.																																						
1권 98페이지 (3쇄부터 반영)	DAY 06	DAY 07																																						
1권 116페이지 1문단 두 번째 줄 (4쇄부터 반영)	'공생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공생 관계'인지 판단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1권 132페이지 지문 3문단 넷째 줄 (4쇄부터 반영)	~2차원 영상으로투영하면~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면 ~																																						
1권 133페이지 29번 문제 2번 선지 (4쇄부터 반영)	~영상의더 아래쪽에~	~영상의 더 아래쪽에~																																						
1권 137페이지 마지막 문단 (4쇄부터 반영)	<보기>에서 '기록'의 궁극적 목적을 '망각의 방지'에 있음을 시사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문에 '기록'의 궁극적 목적이 '망각의 방지'에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1권 140페이지 그림 (3쇄부터 반영)		 스퍼터 이온 펌프																																						
1권 161페이지 18번 문제 <보기> 표 (3쇄부터 반영)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집단</th> <th colspan="3">집단</th> </tr> <tr> <th>사건 전 (A)</th> <th>사건 후 (B)</th> <th>변화 (B-A)</th> </tr> </thead> <tbody> <tr> <td>P주 저임금 식당</td> <td>19.6</td> <td>20.9</td> <td>1.3</td> </tr> <tr> <td>P주 고임금 식당</td> <td>22.3</td> <td>20.2</td> <td>-2.1</td> </tr> <tr> <td>Q주 식당</td> <td>23.3</td> <td>21.2</td> <td>-2.1</td> </tr> </tbody> </table>	집단	집단			사건 전 (A)	사건 후 (B)	변화 (B-A)	P주 저임금 식당	19.6	20.9	1.3	P주 고임금 식당	22.3	20.2	-2.1	Q주 식당	23.3	21.2	-2.1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집단</th> <th colspan="3">평균 피고용인 수(단위: 명)</th> </tr> <tr> <th>사건 전(A)</th> <th>사건 후(B)</th> <th>변화(B-A)</th> </tr> </thead> <tbody> <tr> <td>P주 저임금 식당</td> <td>19.6</td> <td>20.9</td> <td>1.3</td> </tr> <tr> <td>P주 고임금 식당</td> <td>22.3</td> <td>20.2</td> <td>-2.1</td> </tr> <tr> <td>Q주 식당</td> <td>23.3</td> <td>21.2</td> <td>-2.1</td> </tr> </tbody> </table> <p>표 위쪽 : 집단-> 평균 피고용인 수(단위: 명)</p>	집단	평균 피고용인 수(단위: 명)			사건 전(A)	사건 후(B)	변화(B-A)	P주 저임금 식당	19.6	20.9	1.3	P주 고임금 식당	22.3	20.2	-2.1	Q주 식당	23.3	21.2	-2.1
집단	집단																																							
	사건 전 (A)	사건 후 (B)	변화 (B-A)																																					
P주 저임금 식당	19.6	20.9	1.3																																					
P주 고임금 식당	22.3	20.2	-2.1																																					
Q주 식당	23.3	21.2	-2.1																																					
집단	평균 피고용인 수(단위: 명)																																							
	사건 전(A)	사건 후(B)	변화(B-A)																																					
P주 저임금 식당	19.6	20.9	1.3																																					
P주 고임금 식당	22.3	20.2	-2.1																																					
Q주 식당	23.3	21.2	-2.1																																					
2권 91페이지 2문단 세 번째 줄 (3쇄부터 반영)	'소비 욕구'는 그대로인데 '소비하는 양'만 줄어든다는~	'소비 욕구'는 그대로인데 '소비하는 양'만 늘어난다는~																																						

For 2024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독서편 정오표 (해설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권 39페이지 19번 문제 3번 선지 해설 넷째 줄 (3쇄부터 반영)	'울곡의 수양론' 카테고리 속~	'울곡의 경세론' 카테고리 속~
1권 40페이지 21번 문제 1번 선지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3쇄부터 반영)	수기치인 저거 아닌데...	'이'를 어떻게 정확해.
1권 40페이지 21번 문제 1번 선지 해설 (3쇄부터 반영)	'수기'와 '치인'의 정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우리에게겐 헛웃음만 나오는 선지네요. 일단 '이'는 정확의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수기'와 '치인'의 정의 자체가 '기'를 정확하는 것도 아니죠. 18%의 선택률을 보면 학생들이 얼마나 정의 체크를 소홀히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기'와 '치인'이 '기'의 정확을 통해 '성인'이 됨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맞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질 변화론=법제 개혁론'이라는 것을 이해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는 정확의 대상이 아니죠? '이'는 변화할 수 없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임을 확실하게 체크했기 때문에, 가볍게 지워낼 수 있는 선지입니다.
1권 42페이지 (3쇄부터 반영)	12. 윗글에 나타난 '울곡'의 ~	23. 윗글에 나타난 '울곡'의~
1권 61페이지 32번 문제 3번 선지 (3쇄부터 반영)	③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③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1권 65페이지 (3쇄부터 반영)	30. 문맥상 ㉠~㉡와~	36. 문맥상 ㉠~㉡와~								
1권 72페이지 왼쪽 단 두 번째 문단 (4쇄부터 반영)	나아가 '중국 고전'을 강조하고,~	나아가 '중국 고전'을 부정적으로 보고,~								
1권 76페이지 오른쪽 단 (3쇄부터 반영)	45. <보기>를 참고할 때~	41. <보기>를 참고할 때~								
1권 76페이지 45번 문제 <보기> 정리 2문단 마지막 줄, 78페이지 1번 선지 해설 2문단 첫 줄 (3쇄부터 반영)	부피밀도=질량	부피×밀도=질량								
1권 109페이지~110페이지 (3쇄부터 반영)	11.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12. 윗글로 미루어~	15.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16. 윗글로 미루어~								
1권 117페이지~121페이지 문제 번호 (3쇄부터 반영)	6~10	18~22								
1권 130페이지~134페이지 문제 번호 (3쇄부터 반영)	14~17	27~30								
1권 132페이지 28번 문제 4번 선지 '실전 에서의 판단 과정' + '해설' (4쇄부터 반영)	<table border="1"> <tr> <td>실전에서의 판단 과정</td> <td>카메라의 기울어짐을 보정한 건 ㉠인데?</td> </tr> <tr> <td>해설</td> <td>카메라의 기울어짐은 '외부 변수'입 니다. 이를 보정한 영상은 ㉠이죠? ㉡은 '원근'을 보정한 영상이었습니다. ㉠~ ㉡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인식하 는 게 아주 중요했네요.</td> </tr> </table>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카메라의 기울어짐을 보정한 건 ㉠인데?	해설	카메라의 기울어짐은 '외부 변수'입 니다. 이를 보정한 영상은 ㉠이죠? ㉡은 '원근'을 보정한 영상이었습니다. ㉠~ ㉡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인식하 는 게 아주 중요했네요.	<table border="1"> <tr> <td>실전에서의 판단 과정</td> <td>㉡은 영상의 점들을 변화시킨 것이지.</td> </tr> <tr> <td>해설</td> <td>㉠이라는 '영상'과 '실세계 격자판'을 비 교하여 무언가 보정을 한 결과가 ㉠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상 속 '점 들의 모양 · 격자 간의 상대적인 크기'를 '실세계'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보정하 는 것이지, '격자판' 자체를 보정하는 것 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격자판'은 실세 계의 바닥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격 자판' 자체를 보정하면 '실세계'를 보정 한다는 이상한 말이 되어 버립니다. '영 상'을 보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죠. 한편, 카메라의 기울어짐은 '외부 변수'입 니다. 이를 보정해서 얻은 영상이 ㉠이었 고, 이를 바탕으로 '시점 변환'을 한 영상 이 ㉡이니 ㉡이 카메라의 기울어짐에 의 한 왜곡을 바로잡은 것이라는 내용은 틀 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td> </tr> </table>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은 영상의 점들을 변화시킨 것이지.	해설	㉠이라는 '영상'과 '실세계 격자판'을 비 교하여 무언가 보정을 한 결과가 ㉠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상 속 '점 들의 모양 · 격자 간의 상대적인 크기'를 '실세계'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보정하 는 것이지, '격자판' 자체를 보정하는 것 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격자판'은 실세 계의 바닥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격 자판' 자체를 보정하면 '실세계'를 보정 한다는 이상한 말이 되어 버립니다. '영 상'을 보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죠. 한편, 카메라의 기울어짐은 '외부 변수'입 니다. 이를 보정해서 얻은 영상이 ㉠이었 고, 이를 바탕으로 '시점 변환'을 한 영상 이 ㉡이니 ㉡이 카메라의 기울어짐에 의 한 왜곡을 바로잡은 것이라는 내용은 틀 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카메라의 기울어짐을 보정한 건 ㉠인데?									
해설	카메라의 기울어짐은 '외부 변수'입 니다. 이를 보정한 영상은 ㉠이죠? ㉡은 '원근'을 보정한 영상이었습니다. ㉠~ ㉡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인식하 는 게 아주 중요했네요.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은 영상의 점들을 변화시킨 것이지.									
해설	㉠이라는 '영상'과 '실세계 격자판'을 비 교하여 무언가 보정을 한 결과가 ㉠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상 속 '점 들의 모양 · 격자 간의 상대적인 크기'를 '실세계'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보정하 는 것이지, '격자판' 자체를 보정하는 것 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격자판'은 실세 계의 바닥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격 자판' 자체를 보정하면 '실세계'를 보정 한다는 이상한 말이 되어 버립니다. '영 상'을 보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죠. 한편, 카메라의 기울어짐은 '외부 변수'입 니다. 이를 보정해서 얻은 영상이 ㉠이었 고, 이를 바탕으로 '시점 변환'을 한 영상 이 ㉡이니 ㉡이 카메라의 기울어짐에 의 한 왜곡을 바로잡은 것이라는 내용은 틀 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권 139페이지, 140페이지, 143페이지 (3쇄부터 반영)	1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16. ㉠에 대한 동일론자의~ 18. [A]에 드러난 동일론의~	3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33. ㉠에 대한 동일론자의~ 35. [A]에 드러난 동일론의~								
1권 141페이지 33번 문제 3번 선지 해설 표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3쇄부터 반영)	동일론은 인간도 기계도 육체와 독립적으로 존 재하는, 같은 종류의 정신을 가진다고 했지.	동일론은 인간도 기계도 육체와 같은 종류의 정신 을 가진다고 했지.								
1권 147페이지 3문단 3번~4번 문장 해설 1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3쇄부터 반영)	표면에 닿는 정도와 빈도와 높을수록~	표면에 닿는 정도와 빈도가 높을수록~								
1권 153페이지 1문단 5번 문장 해설 셋째~넷째 줄 (4쇄부터 반영)	'바이러스'는 '포자'를 못 만드는데, '진균&세균' 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줘야 해요.	삭제								
1권 170페이지 12번 문제 1번 선지 해설 (4쇄부터 반영)	(1문단 네 번째 줄) 25번 문제의 1번 선지를~ (2문단 세 번째 줄) 25번 문제의 1번 선지와~	(1문단 네 번째 줄) 10번 문제의 1번 선지를~ (2문단 세 번째 줄) 10번 문제의 1번 선지와~								
1권 182페이지 17번 문제 5번 선지 (3쇄부터 반영)	㉡ 바젤위원회 회원이~	㉡ 바젤위원회 회원이~								
1권 207페이지 3문단 8~10번 문장 해설 2문단 마지막 셋째 줄 (3쇄부터 반영)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기차가 고장이 나 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현실 세계에서 더 자주 일어나니까요.	현재 지문에 제시된 '현실세계'에서는 기차가 제시 간에 도착했기 때문에, A가 참일 때 B가 참인 것이 이러한 '현실세계'와 더 유사하다는 의미인 것입니 다.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겠죠?								
1권 211페이지 14번 문제 4번 선지 '해설' (밑줄 부분 추가) (3쇄부터 반영)	선지의 표현대로라면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 계'가 더 많다는 말이기예, 얼핏 보면 미리 생 각한 내용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문에서 이야기한 건 현실세계와의 '유 사성'이었지, 각 가능세계의 양이 얼마나 더 '많 은지'가 아니었어요. 지문에서 이야기하는, '현 실세계와의 유사성'이라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선지의 표현대로라면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 가 더 많다는 말이기예, 얼핏 보면 미리 생각한 내 용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 문에서 이야기한 건 실제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었지, 각 가능세계의 양이 얼마나 더 '많은지'가 아 니었어요. 반대로 만약 '현실세계'에서 기차가 고장 이 났다면, 나는 오히려 "만약 기차를 탔더라도 나								

	잡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선지에 당하지 않아요!	는 지각을 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죠. 그것이 실제 ‘현실세계’와 더 ‘유사’하니까요! 지문에서 이야기하는,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라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선지에 당하지 않아요!								
1권 263페이지, 264페이지, 266페이지 (3쇄부터 반영)	21. 윗글을 읽고 이해한~ 22. [가]에 대한 설명으로~ 24.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17. 윗글을 읽고 이해한~ 18. [가]에 대한 설명으로~ 20.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2권 21페이지 9번 문제 5번 선지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 ‘해설’ (3쇄부터 반영)	<table border="1"> <tr> <td>실전에서의 판단 과정</td> <td>반자유주의 논증의 결론을 왜 받아들여.</td> </tr> <tr> <td>해설</td> <td>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의 입장은 ‘반자유주의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입증 여부’가 아니라 ㉠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td> </tr> </table>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반자유주의 논증의 결론을 왜 받아들여.	해설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의 입장은 ‘반자유주의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입증 여부’가 아니라 ㉠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table border="1"> <tr> <td>실전에서의 판단 과정</td> <td>입증 안 되면 받아들일 필요 없지.</td> </tr> <tr> <td>해설</td> <td>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이 된다면 ㉠의 입장에서 ‘반자유주의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무작위 가정’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기에 ‘반자유주의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죠? 따라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는 틀린 말이 되네요.</td> </tr> </table>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입증 안 되면 받아들일 필요 없지.	해설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이 된다면 ㉠의 입장에서 ‘반자유주의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무작위 가정’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기에 ‘반자유주의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죠? 따라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는 틀린 말이 되네요.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반자유주의 논증의 결론을 왜 받아들여.									
해설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의 입장은 ‘반자유주의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입증 여부’가 아니라 ㉠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입증 안 되면 받아들일 필요 없지.									
해설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이 된다면 ㉠의 입장에서 ‘반자유주의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무작위 가정’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기에 ‘반자유주의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죠? 따라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는 틀린 말이 되네요.									
2권 28페이지 12번 문제 5번 선지 ‘해설’ (3쇄부터 반영)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형법학’의 입장은 베카리아로 인해 탈피하게 된 ‘응보주의’에 가까운 것이고, 사형을~	일단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형법학은 지문에서 언급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사형을~								
2권 42페이지 ‘생각 심화’ 1문단 둘째 줄 (2쇄부터 반영)	‘아도르노’의 작품이~	‘아도르노’의 미학이~								
2권 78페이지 10번 문제 5번 선지 ‘해설’ 밑에서 두 번째 줄 (3쇄부터 반영)	~특정 위치’는 ‘비콘’을 의미한다는~	~특정 위치’는 ‘기준점’을 의미한다는~								
2권 86페이지 12번 문제 5번 선지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3쇄부터 반영)	이건 소스 부호화라니까!	이건 채널 부호화라니까!								

For 2024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문학편 정오표 (본교재)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권 14페이지 '채점 전' 박스 2번 (3쇄부터 반영)	(추천 : 2017학년도 이전 - 8분 / 2017학년도 이후 - 12분)	(추천 : 문제 수 × 1.4분)
1권 65페이지 34번 발문, <보기> (2쇄부터 반영)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가)는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1권 161페이지 15번 문제 빠른정답 (3쇄부터 반영)	15 ㉓	15 ㉑
2권 50페이지 DAY 26 표시 아래 첫 문단 (3쇄부터 반영)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으니,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으니, 요구하는 대로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For 2024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문학편 정오표 (해설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권 13페이지 34번 발문, <보기> (2쇄부터 반영)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㉑ <보기> :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㉑ <보기> : (가)는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1권 119페이지 34번 문제 1,2,4,5번 선지 해설 표 '선지 유형' (3쇄부터 반영)	근거가 없어서 허용 가능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1권 123페이지 37번 문제 3번 선지 해설 표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3쇄부터 반영)	~통시가 사라졌으니~	~통시가 사라졌으니~
1권 129페이지 40번 문제 2번 선지 해설 (3쇄부터 반영)	주제 의식 강조야 당연히 맞는 말일 텐데, '대조'가 있는지 확인해야겠네요. 일단 [A]에는 딱히 대조가 보이지도 않으니 답이 될 수는 없겠어요. [B]에도 좀 애매합니다. '시멘트'가 '그늘'과 대조되는 공간이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둘 다 '나무'가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죠?	[A]는 '~한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라는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고 있는데, [B]에는 딱히 보이지 않네요. 미리 생각한 내용이었죠? '~지요.'는 유사한 '구절'이 아니라 단순히 어미가 같을 뿐이에요. 헛갈리면 안 됩니다!
1권 229페이지 93번 문제 5번 선지 해설 (3쇄부터 반영)	화자는 '오심암'을 '겸손'하고 '순결'한 자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보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작가의 발상과 통찰을 통해 '자연'에서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자는 자신의 '먼지 낀 의복'을 본 다음, 또 자신의 '몸뚱어리'와 '마음'을 떠올리며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부끄러워까지 하고 있으니 '반성적인 태도'라는 말을 쉽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1권 239페이지 15번 문제 빠른정답 (3쇄부터 반영)	15 ㉓	15 ㉑
2권 27페이지 108번 문제 3번 선지 해설 FAQ (2쇄부터 반영)	A. '의문형' 혹은 '추측성 표현'이 쓰이지 않는~	A. '의문형' 혹은 '추측성 표현'이 쓰이는~
2권 34페이지 오른쪽 단 '생각 심화' 넷째 줄 (3쇄부터 반영)	자신의 아버지도~	자신의 할아버지도~

2권 84페이지 139번 문제 4번 선지 '해설' (3쇄부터 반영)	'일규'가 깨끗하게~	'기범'이 깨끗하게~
2권 94페이지 144번 문제 5번 선지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2쇄부터 반영)	내적 고요만으로~	외적 고요만으로~
2권 131페이지 5번 문제 5번 선지 '선지 유형' (3쇄부터 반영)	근거가 없어서 허용 가능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2권 139페이지 10번 문제 4번 선지 '선지 유형' (3쇄부터 반영)	근거가 없어서 허용 가능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2권 143페이지 12번 문제 4번 선지 '선지 유형' (3쇄부터 반영)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2권 143페이지 12번 문제 4번 선지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3쇄부터 반영)	상대의 부탁을 수용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알게 하는 게 어떠냐고 하고 있으니 묻는 방식, 공감 유도 둘 다 허용되지.
2권 143페이지 12번 문제 4번 선지 '해설' (2쇄부터 반영)	'준중'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면 제대로 해석하기 힘든 시구입니다. '준중'은 '술이 든 곳'을 의미하는데, 술독이 비었으면 자신에게 알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걸 몰랐다고 해도, '상대의 부탁 수용'을 허용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승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묻는 방식'과 '공감 유도'를 모두 허용할 수 있겠죠. 현대어처럼 읽고 근거를 찾으면 됩니다. 고전시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2권 178페이지 12번 문제 1번 선지 '해설' (3쇄부터 반영)	'그녀'는 조정의 정보를 담은 공적 정보인 '조보'를 남편의 승진이라는 사익을 위해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조보의 '공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말을 허용할 근거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모습들이죠.	<보기>에서 '박씨전'은 여성 독자들의 소망에 부응했다고 밝혀주기도 했고, 남자들은 짐작하지 못하는 지략을 펼치는 여성의 모습은 '여성 독자의 소망'을 대변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2권 186페이지 16번 문제 1번 선지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2쇄부터 반영)	저 정도면 충분히 신이하지.	진량의 모함으로 처벌하기로 한 거지.
2권 218페이지 왼쪽 단 지문 박스 사이 2문단 둘째 줄 (2쇄부터 반영)	이곳은 '석파'가 '석씨'와 함께 대화를~	이곳은 '석파'가 '여씨'와 함께 대화를~
2권 279페이지 4번 문제 3번 선지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3쇄부터 반영)	흑부리 영감한테 아무 말도 못했잖아.	캐러멜 먹었다고 난리를 쳤으면서 무슨.
2권 279페이지 4번 문제 3번 선지 '해설' (3쇄부터 반영)	아버지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나'의 잘못에는 불같이 화를 냈으면서,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잘못된 거래에 대해서는 바로잡지 못합니다. 완전히 반대로 서술된 선지네요.	아버지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나'의 잘못을 묵인하기는커녕 불같이 화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절대로 허용할 수 없겠네요. 물론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흑부리 영감'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는 등 거래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죠?